

순창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87.5%

5개 분야 총 79개 사업 중 52개 사업 완료... 행정 신뢰도 제고 총력

순창군 민선 8기 최영일 호의 공약 이행률이 87.5%를 달성하며 순조로운 군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 중 5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7개 사업이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사업의 추진율을 종합한 평균 이행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상당한 진전을 보인 수치다.

이번에 완료(이행 후 계속추진)로 전환된 주요 사업은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최영일 순창군수

△노후화된 마을회관 현대식 리모델링 추진,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등 노후화 개선, 부품수리비 지원 등 총 10건이다.

또한, 군의 역점사업인 △경천 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비롯해,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 △마을하수도 보급률 확대 등이 지난해 3분기 대비 이행률이 크게 상승하며,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군은 2025년에도 △노인 일자리 3000개 달성, △사망자 장제비 일부지원, △객토사업 지원, △농기계대기 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공약이행률 또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4년에는 일부 행정절차 지연과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로 사업들이 정제 없이 진행되며 이행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주민배심원과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내실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후반전에 돌입한 순창군은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낮은 일부 하드웨어 사업도 수시 점검하고, 다각적으로 해결방향을 모색해 임기 내 단계적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소망하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공약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이어진다

지자체 최초 기업 유치 · 인력난 해소 위해 올해도 추진

남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기업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을 작년에 이어 2025년에도 본격 추진한다.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남원 실정에 맞게 기획한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원에 투자 결정한 기업의 초기 인력난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사업에서는 관내 신설 · 증설하는 기업의 필요 인력을 사전에 모집 · 교육을 실시하고,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생에게 2개월 교육 기간 월 최대 60만원의 교육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은 교육생 채용 시 최대 2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기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채용에 성공한 기업은 간식 제공과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사)전북산학융합원(원장 강승구)이 사업을 맡아 수행중이며, 남원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서 남원 시민을 채용해 사업단을 운영중에 있다.(문의 063-625-0882)

한편 최경식 시장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의 기업투자 공장인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동된 것은 퀵스타트 프로그램 덕분이었다며, 남원에 투자한 ‘원푸드’ 기업도 지난해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아 현재도 성공적으로 가동,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민 임실군수, ‘GBCH 챌린지’ 동참

심 민 임실군수가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 도민의 열원을 하나로 모으는 캠페인에 힘을 보탤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전북의 도전과 열원을 널리 알리고 도민 참여를 독려했기 위해 시작했다.

심 민 군수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되면 전 세계인들이 임실을 비롯한 전북 곳곳을 방문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전북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임실 치즈와 낙농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지역 명소를 적극 홍보해 임실군이 치즈와 낙농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다음 주자로 임실군의 회 장종민 의장과 임실군체육회 감병이 회장을 지목하며 릴레이의 열기를 이어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산불방지 근로자 발대식 가져

남원시는 3일, 불철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장 강당에서 126여 명의 산불방지 근로자들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상감시원, 기동순찰대원 등 산불방지 근로자들의 근무요령 교육 및 산불예방 동영상 시청, 산불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 등과 함께 산불예방 최전방에 설 것을 약속하고 산불방

지 · 예방활동 철저를 결의했다.

또한 산불방지 및 초기 진화를 위한 영농부산물 사전 파쇄 작업 및 입산통제구역 수시 단속, 불법 소각행위 제도 · 단속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각산불 방지 및 초기진화가 몹시 중요함을 인식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력 집중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드론 무인 자율비행 · 현장 지원시스템 시연회

남원시, 드론 플랫폼 기반 재난 안전 · 생활여건 개선

남원시는 3일, 운봉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장에서 전북 최초로 드론 무인 자율 비행 및 현장 지원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최경식 시장, 김영태 시장의 시의원,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산불방지 근로자 등 총 180여 명이 참석해 불철산불방지 근로자 발대식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드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현장 지원시스템을 시연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드론이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 발생 지점을 탐색하고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지휘본부 현장지원시스템에 송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론에 장착된 화상기를 통해 산불 예방 및 안전 계도 방송 등을 선보였다.

남원시의 드론 플랫폼은 2023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촌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이 플랫폼에는 방치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방치 폐기 등을 자동 분석하는 AI 분석 알고리즘과 드론 무인 자율비행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24년에 지휘통제 기능이 강화된 현장지원 시스템을 추가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이날 시연회를 통해 드론은 조종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좌표 입력으로 비가시권에서 자율 비행하며 4K 고해상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 · 전송해 현장지원 시스템에서 즉각적인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최경식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인 드



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레저스포츠, 재난안전과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기술인 드론을 적극 활용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태 시장의 의장도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존 숙련된 드론 전문가의 수동조작이 필요했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통해 재난 대응 활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참석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을 의미하며, 사물인터넷(IoT)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은 6월 30일까지 1억원을

투입해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시설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4~5종) 설치 사업장이다.

참여 신청은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14일까지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농기센터 “과일 품질 향상에 동계 전정 필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건강한 과수나무와 과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동계 전정이 필수라며, 나무 지상부가 생육을 멈춘 겨울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수세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내부까지 햇빛이 스며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계 전정은 꽃눈 분화와 발육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으로, 제대로 수행하면 잘 자라도록 하고 나무의 수형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며 작업 효율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과수 수량을 조절할 수 있고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동계 전정 시기는 과수나무가 본격적으로 생육을 시작하기 전인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으며,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은 피하고, 맑고 건조한 날에 작업한다. 꽃샘추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시기와 방법도 조정한다.

노쇠한 가지는 제거해 나무의 에너지를 건강한 가지로 집중시키고, 가지가 뻗뻗하면 통풍이 어려워 병해충 위험이 높아지므로 가지 간격을 확보하고 수형을 단순화하고, 가지를 자를 때 건강한 눈을 남겨 다음 해 과실 형성을 유도하고, 과수 화상병 등 병이 의심되는 가지는 즉시 제거해 다른 나무로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식품위생 길라잡이 책자 제작 · 배부

순창군은 음식점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위생 길라잡이’ 책자에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식중독 예방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보가 담겼다.

책자는 식품접객업 인허가부서에 비치되어 우선적으로 신규 영업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규 영업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